

“대학 졸업후 실뱀장어·낙지 잡아 연 1억...남 부럽지 않아요”



바다에서 희망 찾는 사람들

“힘든 만큼 돌아오는 소득, 대기업 부럽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나갈 때 묵묵히 고향을 지키며 바다에서 길을 찾는 청년이 있다. 어선어업계의 막둥이 김동희(27)씨다.

신안군 압해읍 송곡리 출신 김씨는 대학을 갓 졸업한 24살 때부터 어선어업에 뛰어들어 4년차 선장이 됐다. 거시호(1.2t), 동희호(1.4t), 진성호 2척(각 1t·0.5t) 등 배 4척을 운영하며 전통방식인 이랑망(썰물 때 설치해 밀물 때 들어온 고기를 가둬두는 그물)과 정지망(얕은 바다 밑에 고정해 물고기를 유도하는 긴 깔때기 모양 그물) 조업을 한다.

주로 잡고 있는 어종은 실뱀장어·낙지·주꾸미 등으로, 연평균 순소득 1억원을 올리고 있다.

김씨는 신안 해양과학고등학교와 국립한국수산대학교(전주) 수산양식학과를 수석 졸업했다. 2013년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돼 어업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1년 뒤인 2014년 첫배인 0.5t 규모 진성호를 마련했다. 주낙으로 낙지·주꾸미 등을 잡아 돈을 벌기 위한 계획이었다.

평생 바다에서 산 아버지에게 이어 아버지 김성갑(67)씨도 현재까지 배를 몰고 있고 어머니 정금숙

신안서 3대째 어업 잇는 어선어업계 막둥이 김동희 선장

(63)씨도 장흥 바닷가마을 출신이다.

바다를 놀이터 삼아 자란 김씨에게도 뱀얼은 만만치 않았다. 아버지에게 그물 목는 법 등 기초는 배웠지만 실제 그물을 치고 끌어올리는 일은 엄청난 체력과 기술이 필요했다.

김씨는 손바닥 굳은살을 보여주며 “처음에는 그물이 올라오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낙지를 놓치기도 하고 다치기도 했다”며 “음식도 준비할 줄 몰라서 굶고 일하다가 힘이 빠져서 그물을 못 끌어올린 적도 있다”고 말했다.

낙지잡이는 외로움과 싸우는 일이라고 한다. 야행성인 낙지를 잡기 위해 해 질 녘 혼자 배에 올라 뜨는 해를 보며 돌아오는 날들이 이어졌다.

어느 정도 일이 적응되고 나자 수익이 생겼다. 2015년 7000만원, 2016년은 1억3000만원이다. 1월 3~5만원에 달하는 선박 연료비용을 제외하면 모두 순소득이다.

지난해에는 안전과 함께 소득을 더 올려보자는 생각에 약 1억원을 들여 자신의 이름을 딴 동희호를 구입했다. 장어 양식용 실뱀장어잡이 안강망 어선이다.

“신안 바다에서는 배가 뒤집혀 매년 1~2명씩 실종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 고기가 잘 잡히니 사람들이 욕심을 내요. 저는 절대 바람이 불면 바다에

배 4척 운영 전통방식 조업 4년차 지난해 농어촌 청소년대상 장관상 부모님은 횡집운영 승어 무한리필 언젠가는 양식업에 도전하고 싶어

나가지 않아요. 동희호는 최신식이라 파도에 흔들리는 정도가 덜 해요. 별이가 좋다는 소리에 최근 30~40대 젊은 귀어인들이 많은데 꼭 안전에 투자하시면 좋겠어요.”

동희씨 부모는 직접 잡은 물고기를 재료로 하는 거시기횡집을 운영 중이다. 아무리 손님이 많이 와도 물량이 없으면 문을 닫고 잡은 고기가 많으면 ‘무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아들까지 고기잡이에 가세해 할 인심이 더 후해졌다. 거시기횡집은 ‘승어 무한리필’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동희씨는 가장 보람찬 일로 식탁 리모델링을 꼽았다. 인테리어, 조명, 최신 에어컨 설치를 비롯해 어머니가 일하던 주방을 두 배 가량 넓혔다. 비좁은 곳에서 고생하던 어머니는 아들 덕에 허리펴고 요리할 수 있게 됐다.



청년어업인 김동희씨가 자신의 이름을 딴 실뱀장어잡이 어선 ‘동희호’를 소개하고 있다.

이 비해 덜 잡힌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어장을 보호해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겠지요. 개인적으로는 더 큰 안강망 배를 구입하고 싶어요. 언젠가 양식업에도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김동희기자 kimyh@kwangju.co.kr



담양서 자살예방 언론보도 개선 워크숍

광주정신건강센터·광주전남기자협회

광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센터장 신일선)와 광주·전남기자협회(회장 장필수)는 최근 담양죽녹원에서 ‘자살예방 언론보도 개선’을 주제로 워크숍을 열었다.

광주전남기자협회 소속 경찰서 출입기자 30여 명이 참여한 한 워크숍에서는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기사 쓰기와 자살을 줄일 수 있는 언론의 기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또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하는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을 통한 언론보도 개선 방향을 토론했고, 언론과 자살예방센터가 협력을 통해 자살예방 운동을 확산하는 방안 등도 논의했다.

신일선 센터장은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관련 기관들의 꾸준한 관심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광주시가 3년 연속 전국 최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자살 관련 언론보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더해진다면 자살 없는 광주시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팀 쿡 “인간이 컴퓨터처럼 생각하는 게 걱정”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사진)는 “나는 인공지능(AI)이 컴퓨터에 인간처럼 생각하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걱정하지 않지만, 인간이 컴퓨터처럼 생각하는 것은 더 걱정된다”고 강조했다.

쿡 CEO는 9일(현지시간) MIT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졸업축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회사 주주들은 투자에 대한 이익을 얻어내려 하지만, 엔지니어들은 옳을 것을 추구하는 용기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음악회·글짓기로 구강보건 중요성 일깨워



박창현(맨 오른쪽) 광주시치과의사회장이 ‘구강보건상’ 시상식 후, 수상 청소년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시치과의사회 제공>

광주시치과의사회

구강보건의 날 행사 다채

구강보건의 날(6월9일)을 맞아 광주시치과의사회(회장 박창현)가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 시민들에게 구강보건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주고 있다.

광주시치과의사회는 지난 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72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 시상식 및 작은 음악회를 가졌다.

‘구강보건상 시상식’은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는 치과의사를 비롯해 광주시내 초·중학교에서 구강검진으로 선발된 건치인을 대상으로 최종심사를 통해 건치학생(초등학교, 중학교)10명, 건치 모자, 건치어르신(2명) 등을 선발해 시상했다.

‘구강보건상 시상식’은 지난 1959년 ‘제1회

건치아동 표창식’이란 타이틀로 초·중학생에게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을 심어주기 위해 시작했다.

광주시치과의사회는 구강보건 관련 글짓기와 포스터 및 그림을 그리는 ‘2017년 초·중·고·고교생 공모전’도 개최했다. 수상작품은 오는 19일까지 전남대치과병원과 조선대치과병원에서 전시된다. 치과의사회는 11일 오전 중심사 지구관리사무소에서 광주시, 전남대·조선대치의학전문대학원,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광주전남지회 등과 함께 ‘치아사랑 구강보건캠페인’을 벌였다.

박창현 광주시치과의사회장은 “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한층 성숙한 구강보건 의식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구강보건을 위해 애쓰고 있는 광주시 치과의사들의 노력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

국제농업박람회, 국제관광전 최우수마케팅상 수상

2017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이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개최된 제32회 한국국제관광전에서 최우수마케팅상을 수상했다. <사진> 한국국제관광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주)코트파가 주관한 이번 국제관광전은 서울 코엑스에서 국내외 여행정보 제공과 관광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세계 60여 개국, 500개 기관 및 업체가 참여했다.



2017국제농업박람회는 전남도에서 진행되는 국제행사에 더 많은 해외관광객들과 수도권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전남의 대표 관광지와 국제행사를 연계해 홍보하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마케팅상을 수상했다.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는 주제로 준비되는 2017국제농업박람회 홍보부스에는 올 가을

전남관광지와 박람회를 함께 찾고 싶다는 관광객들의 여행코스 문의와 새로운 여행소스를 찾는 여행사 관계자들의 상담이 진행됐다. 올해로 3회째 국제행사로 진행되는 국제농업박람회는 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11일간 전남도농업기술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KT&G 전남본부 ‘밝은세상 만들기 벽화그리기’



KT&G 전남본부(본부장 이승우)는 최근 호남대 학생들과 광산구 도산동 주민센터인근 방울방울 골목길에 ‘밝은세상만들기 프로젝트’의 하나로 ‘벽화 그리기’에 나섰다. <KT&G 전남본부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4 FAX 062-222-4938. 222-4918

충진회

▲전주에서 대중음악원 광주·전남지원(지원장 이담우) 이화회(회장 이강렬) 월례회=13일(화) 오후 6시 지원회의실 062-225-5636.

동문회

▲광주 북성중학교 총동창회(회장 윤복현) 한마음체육대회 및 무등산 자연보호 캠페인=24일(토) 오전 9시 무등산 중심사 문빈정사 앞 집결 후 산행, 오후 12시 30분 수자타에서 오찬행사, 문의 사무총장 오영남(21회) 010-9948-4867.

알림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부 모상담, 입양상담 24시간, 미혼양육모 지원,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모자원, 심리상담센터 운영 062-222-9349. ▲국토농보청기 광주서구점 무료 청력검사=노인 대상 방문 무료 청력검사, 청

각장애인 상담, 거동 불편시 가정방문 청력검사 문의 062-375-9275.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금융컨설팅’ 채권·채무·재테크 무료 출장 상담=다중 채무·개인회생 및 파산 안내, 사업자 및 개인 채권 서류 검토 작성 대행, 재테크 절세 방법 상담 010-6392-4585.

▲가시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1~3급), 중증질환자 등 타인의 도움이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지원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무료 상담=성폭력 피해자 상담, 의료 지원 및 법률지원 062-521-1365.

▲광주신세계희망장난감도서관 자유 놀이실 무료이용=건강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장난감 대여 및 놀이공간 제공 12

세 미만 아동은 누구나 이용 가능. 광주 북구 오치2동 광주종합사회복지관 3층 월요일 휴관, 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062-264-0060.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상담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061-285-1161.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주치 운영=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무료 상담 062-654-3802.

모집

▲전남담양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회원=담양거주자이면서 조건부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 근무, 식품유통, 도자기, 집수리 등. 061-383-9909.

▲북구 골든벨 축구클럽 동호회원은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분. 20세 이상, 선수 출신 환영. 010-3608-1060.

▲전통문화 보전 연구회원은 한문·예절·다도·시조 등 우리 전통문화를 쉽게 익히고 배울 수 있는 회원 선착순 모집. 북구 중흥 3동 동사무소 맞은편 062-268-5588, 010-9440-2512.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중장년세대 동년배 상담실 운영=제2인생설계를 위한 일자리, 사회공헌활동, 재무, 건강, 관계 등. 매일 오후 1시~6시. 광산구 소촌동 광주시공무원교육원 4층. 문의 062-600-5242.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광산구장애인복지관 일상생활동작지도 이용인=지체, 뇌병변장애인으로 가정방문 일상생활동작지도, 이용료 무료, 연령제한없음 기능향상지원팀 062-943-0420.

▲나주 아동가족상담센터 회원=미술·미로·언어치료, 전화·내방 접수 가능. 비용 1만8000원. 061-332-8991~2.

▲길라잡이 프로그램 회원=(베이비 마사지, 요리만들기, 육아용품 만들기, 육

아상식교육, 자조모임 등), 결혼이주여성 한글교실(초·중급반 한국어 교육) 회원 모집 062-267-3700.

▲성모사랑 노인방문요양 센터 회원=고령, 노인성질환(치매·중증·노환), 돌봄 서비스 등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휴일 상담 가능 062-385-3678.

▲충만재가복지센터 회원=방문요양·방문목욕·복지용구상담·노인복지상담

일반가족 회원가입 상담 062-942-9982.

부음

▲박정희씨 별세 임판주(한국증권금융광주지점장·창주(LS)전선 통신인프라 국내영업팀)·진국(재미 자랑업)·은정(주부)씨 모친상=발인 12일(월) 충남 조치원 중앙장례식장 특2호실 044-865-4441.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201호 故조정희 남(남/88세) 子/子婦 : 조경옥/유옥주, 경주/손미라 女/婿 : 조경숙/백형식, 순의/오홍진, 경옥/민승현, 경자/심동주 未成人 : 이단애 *발 인 : 6월 12일 *장 지 : 해남계곡연서영 *연락처 : 227-4381	401호 故조길림 남(여/88세) 子/子婦 : 위성운/김옥연, 성식/박행림, 성근/최미숙 女/婿 : 위덕삼/박상기, 성업/이문환 孫 : 위대원, 정훈, 삼진, 상호, 여연 *발 인 : 6월 13일 *장 지 : 장흥관산선영 *연락처 : 227-4383
402호 故김만득 남(남/74세) 女/婿 : 양태영/윤준식 未成人 : 한화자 *발 인 : 6월 13일 *장 지 : 영락공영 *연락처 : 227-4383	102호 故이미정 남(여/52세) 子/子婦 : 김점수/손미영 未成人 : 김숙희 *발 인 : 6월 13일 *장 지 : 영락공영 *연락처 : 227-4385
함께한10년.함께할100년 금호장례식장 062-227-4000 www.mykumho.com 대표이사 구제길	